

“GIST 기념품 수익금, 학생 복지 확대하겠다”

지스트발전재단 ‘지니어스’ 첫 판매 수익 기부

‘천원의 아침밥’에 1천만원 기탁
“지속 가능 나눔 문화 확산할 것”

(재)지스트발전재단이 광주과학기술원(GIST) 캠퍼스 내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지니어스COOP’의 첫 판매 수익금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기부했다.

2일 GIST에 따르면 ‘지니어스COOP’은 GIST의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반영해 (재)지스트발전재단이 기획·운영하는 팝업스토어로, GIST 구성원을 비롯한 캠퍼스 방문객들에게도 학교 브랜드를 알리고 캠퍼스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 왔다.

(재)지스트발전재단은 ‘지니어스COOP’의 첫 판매 수익금 1,000만원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기부했고, 단순한 수익 사업을 넘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 후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GIST 제2학생회관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임기철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발전재단 이사진, 학생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식당에서 함께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판매 수익이 다시 학생 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의 의미에 대해 공감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GIST 학생들에게 꾸준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대표적인 학생 복지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 단돈 1,000원에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습관 형성과 학업 집중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해영 (재)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은



(재)지스트발전재단이 GIST 캠퍼스 내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지니어스COOP’의 첫 판매 수익금 1천만 원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기탁했다. GIST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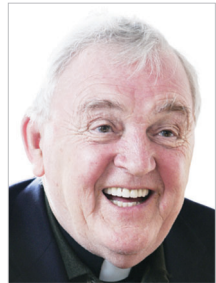
“지니어스COOP의 뜻깊은 첫 수익금이 학생들의 아침밥으로 이어지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지속 가능한 후원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임기철 GIST 총장은 “이번 후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GIST의 캠퍼스 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발전재단과 함께 다양한 체감형 기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지스트발전재단은 지니어스COOP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GIST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한국 장애인 복지의 선구자’ 천노엘 신부 선종…향년 93세



한국 장애인 복지의 선구자이자 국내 첫 장애인 그룹홈 설립자인 천노엘 신부(본명 오닐 패트릭 노엘)가 선종했다. 향년 93세. 2일 전주교 광주대교구에 따르면 천노엘 신부는 지난 1일 0시 30분(현지 시각 오전 8시 30분) 고향 아일랜드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천 신부는 1956년 사제서품을 받고 1957년 한국에 파견됐다. 1958년 장성성당 보좌신부로 선교 활동을 시작한 후 서교동본당, 원동본당, 제주중앙본당, 복동본당, 농성동본당에서 주임신부로 사목했다.

그는 무등강생원에 봉사를 다하며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성, 봉사자 2명과 함께 1981년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주택을 빌려 지적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그룹홈을 마련했다. 1985년 엠마우스 복지관, 1993년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를 설립해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천 신부는 장애인 권의 보호와 인식 개선에 헌신한 공로로 1991년 광주시 제1호 명예시민이 됐고 2016년에는 법무부로부터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천 신부는 지난해 7월 11일 퇴임 후 건강 등의 문제로 고향인 아일랜드로 돌아갔다.

천노엘 신부는 평소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으며, 천 신부의 장례 일정은 광주대교구와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가 함께 논의 중이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대교구청 대성당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을 받고 있다.

2일은 오후 8시까지, 3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진화 기자

광주시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살레시오초등학교 ‘대상’ 수상

제26회 광주시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서 서부소방서 대표로 참가한 아이숲유치원과 살레시오초등학교가 경연대회에서 수상했다.

2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개최된 경연대회에 각각 유치부 최우수상과 초등부 대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동요를 통해 안전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소방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유치부 10개 팀과 초등부 6개 팀, 총 16개 팀이 참가해 열린 경연을 펼쳤다.

특히 아이숲유치원팀은 A·B 두 팀이 출전에 창의적인 율동과 정확한 가창으로 유치부 금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광천청소년문화의집 소속 119청소년단팀은 안정적인 무대 구성과 뛰어난 팀워크를 바탕으로 초등부 금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살레시오초등학교팀은 작품성과 표현력에서 심사위원들로 높은 평가를 받아 초등부 대상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살레시오초등학교팀은 오는 9월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 광주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나눔과 동행, 장애인 육상선수 김천천에 후원금 300만원 전달

장애인체육·청년예술인 지원

봉사단체 ‘나눔과 동행’이 장애인체육선수와 청년 예술인을 위해 2년 연속 후원에 나섰다.

2일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나눔과 동행이 서구 일원에서 장애인체육선수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육상선수 김천천(오른쪽 첫번째·한전 KPS·광주장애인육상연맹)에게 후원금 3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이번 전달식은 나눔과 동행이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자리로, 장애인체육선수 1명과 비장애인체육선수 2명(검도 우주현, 골프 김은세), 청년 예술인 1명(화가 정송희) 등 총 4명에게 후원금이 전달됐다.

후원을 받은 김천천은 시각장애인 투척



종목(원반·창·포환) 선수로 지난해 열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 광주시가 종합 5위를 기록하는데 기여했다.

김명원 나눔과 동행 회장은 “장애인체육선수들과 인연을 맺고 2년 연속 후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나눔과 실천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체육·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북구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 안전지킴이 위촉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오치북합커뮤니티센터 2층 다목적프로그램실에서 ‘공공체육시설 안전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전지킴이는 공개 모집을 통해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이나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총 6명이 위촉됐다.

위촉된 안전지킴이는 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유해 요인을 발굴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최환준 기자



전매게시판

알림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제공=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가정의 사후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구당침뚝 수강생 모집=기본반 3개월(토/12회) 성인병 예방·치료, 가족주치의. 문의 뚝사랑 광주교육원 062-521-3999, 010-4642-4779.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10-8602-0001.

△광주시 전남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 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무료상담&주간프로그램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 자살 우울 문제 등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노후를돌보는사람들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

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마루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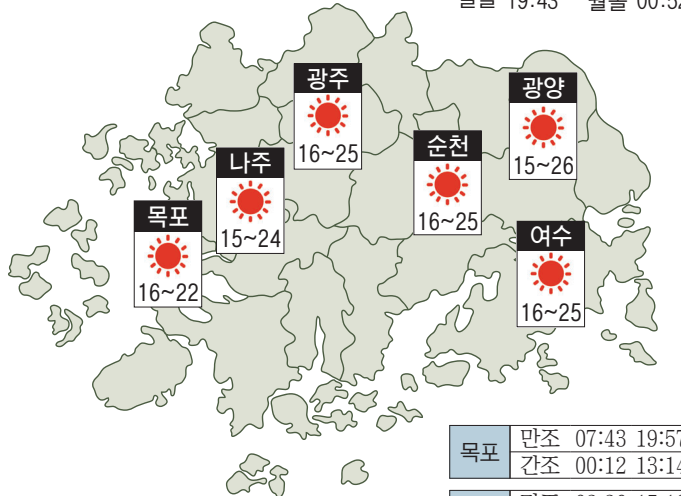
△지역주민의정신건강을 위한 열린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위한무료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 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 교육정서지원 문화체험 석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내실 곳 : jndnnews@naver.com

오늘의 날씨

일출 05:19 월출 12:21
일몰 19:43 월몰 00:52



장성	☁ 14~24	영암	☀ 15~24	완도	☀ 16~25
담양	☁ 16~24	진도	☀ 15~22	강진	☀ 16~25
화순	☀ 15~24	신안	☀ 17~22	장흥	☀ 16~25
영광	☀ 15~23	흑산도	☀ 15~21	해남	☀ 16~23
함평	☀ 15~23	구례	☀ 16~26	고흥	☀ 16~26
무안	☀ 15~22	곡성	☀ 15~25	보성	☀ 15~24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